2. 대승 불교의 가르침

1. 용수(龍樹)와 중관(中觀) 사상 – 모든 존재의 실체 없음

1. 공(空)과 중도(中道) 사상

1. 연기(緣起) : 불교의 근본 진리로, 개별 현상에 고유한 본질이 없다는 공(空)의 원리 즉 공성(空性)임.
   - 연기와 공성의 원리에 따라, 현상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존재함
2. 공(空) :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음.
   - 모든 존재는 연기에 의해 인과관계로 얽힌 상호 의존적 존재이므로 고정불변하는 독자적 성질[自性]은 없음.
     = 모든 존재는 연기성이기에, 그 자체의 고유한 자성이 없으므로 공하다고 하는 것임.
   - 공(空)은 유와 무의 극단이 없는 것이므로 중도(中道)를 지향함
3. 중도(中道) : 유(有)에 대한 집착, 무(無)에 대한 집착이라는 양극단을 벗어난 상태.
   - 유(有)에 대한 집착은 불변의 본질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고, 무(無)에 대한 집착은 모든 현상이 우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허무주의적 관점임.
   - 어리석은 중생의 생각으로 구성한 상대적 개념이 모두 근거 없음을 밝혀 내어 부정하고, 궁극적 깨달음을 지향해야 함.
   - 중관 사상은 사상적 중도를 지향하기에, 중관이라고 하는 것임.

2. 이제설(二諦說)

1. 언어를 사용할 때 생기는 이분법적 사유로 인해 그릇된 견해가 발생하나, 언어를 모두 부정해서는 안 됨.
2. 부처의 가르침은 궁극적 진리[勝義諦]와 언어적 진리[世俗諦]라는 두 가지 진리에 의해 설해짐.
   - 세속제(世俗諦) : 중생의 말을 빌려 표현한 언어적 진리, 즉 연기의 세계.
     - 우리의 삶이 인연으로 이루어진 과로서, 생멸의 원리로 되어 있다는 것 등의 초보적인 원리
   - 승의제(勝義諦) :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궁극적 진리. 일체를 부정하고 언어를 초월하는 것.
     - 공을 체득한 경지. 연기적 사유가 극대화되어 의식상에서 공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해가 구현된 경지.
   - 무에 집착하는 자에게는 세속제를, 유에 집착하는 자에게는 승의제를 설하여 진리의 참모습을 밝힘.
3. 궁극적 진리는 언어적 진리에 의거해 있으며, 궁극적 진리를 체득해야 열반에 이를 수 있음.
   - 궁극적 진리인 공의 진리와 언어적 진리로서의 연기의 진리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세속제는 연기와 공을 바탕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연기와 공을 부정하면 세속의 삶을 부정하는 것임.
     - 세속제를 성립시키는 바탕으로서의 연기와 공을 바로 알지 못하면, 승의제도 열반도 얻을 수 없음.
   - 궁극적 진리는 언어로써 깨달을 수 없지만, 언어적 진리를 통해 가르쳐질 수밖에 없음.
     => 궁극적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언어로 표현된 경전의 가르침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야 함.

3. 유식(唯識) 사상 – 마음이 만들어 낸 현상 세계

1. 유식 사상의 등장

1. 중관 사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비판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유식 사상이 등장함.
   - 공을 드러내는 것에 너무 집착해, 공성(空性)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허무주의로 보는 사람들이 생겨남.
2. 유식(唯識) : 존재하는 것은 오직[唯] 마음[識]임.
   - 불변의 본질을 가진 객관적 현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唯]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識]만이 존재함.
   - 존재하는 것은 오직 마음[識]뿐이며, 외적 사물은 식이 변하여 나타난 마음의 그림자일 뿐임.
   - 의식을 제대로 잡고 그 의식의 근본을 알아야 궁극 목적인 해탈에 이를 수 있음.

2. 초기 유식 사상 : 마음이 지닌 세 가지 본성

초기 유식 사상에서는 용수가 언어적 진리의 기능을 인정한 점을 계승하며 마음이 지닌 세 가지 본성을 통해 우리가 왜 윤회하고 어떻게 해탈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속 현상은 본래 연기의 원리에 따라 다른 여러 조건에 의존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소멸한다. 하지만 공성을 모르는 중생은 그때마다 마음속 현상에 대응하는 불변의 본질을 상상해 내고, 이로 말미암아 업을 짓고 윤회를 계속한다. 반면 중생이 마음에 본래 불변의 본질이 없다는 공성의 완전한 진실을 깨달으면 해탈하는데, 이는 분별을 본성으로 하는 마음인 식(識)을 변화시켜 분별이 없는 마음인 지(智)를 얻는 것이다.[1)]

3. 후대 유식 사상 : 여덟 가지 식[八識]

후대 유식 사상에서는 윤회와 해탈의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우리의 마음을 자세하게 분석한다. 이에 따르면, 마음은 매 순간 일어나는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사유 등 여섯 가지 인식(六識)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인식은 우리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런데 매 순간 변화하는 여섯 가지 인식의 바탕에는 우리가 쉽게 알기 어려운, 지속되는 마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섯 가지 인식의 주체로 영원불변하는 나를 상정하는 자아의식이다. 다른 하나는 여섯 가지 인식의 바탕이 되면서 동시에 여섯 가지 인식을 통해 만들어진 경험이 보존되는 마음이다. 이때 경험은 잠재적인 힘으로 존재하는데, 이를 비유하여 종자(種子)라고 부른다. 이러한 종자 중 업의 결과인 번뇌의 종자가 미래에 새로운 조건을 만나 업을 지으면 중생은 윤회를 계속하게 된다. 하지만 수행의 결과인 지혜의 종자가 성숙하여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면 모든 식이 지로 변화하여 해탈하게 된다[2)].

cf. 후대 유식 사상 보충 설명

1. 팔식(八識) : 매 순간 변화하는 여섯 가지 식[六識] + 육식(六識)의 바탕이 되는, 지속되는 두 가지 식.
2. 여섯 가지 식[六識] : 전오식(前五識)[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 제육의식(意識)
   - 전오식은 다섯 감각 기관[五根]에 근거하여 각기 그 인식의 대상인 오경(五境)을 구별하는 마음임.
   - 제6식인 의식(意識)은 의근(意根)에 의지하여 유무형의 모든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임.
3. 제7식, 말나식(末那識) : 여섯 가지 인식의 주체로 나를 상정하는 자아의식.
   - 제8식인 아뢰야식(阿賴耶識)에 의지하며, 아뢰야식을 상대로 집착하여 근본 번뇌를 일으키는 식(識).
   - 근본 번뇌로 말미암아 다른 식에게 많은 지말적 번뇌가 생기고, 이것이 생사윤회 고통의 원동력이 됨.
4. 제8식, 아뢰야식(阿賴耶識) : 여섯 가지 식을 통해 만들어진 경험이 보존되는 마음.
   - 선악의 행위에 의한 업력을 보존하여 업의 영향이 결과를 초래할 때까지 보존하는 식(識).
   - 번뇌의 종자가 미래에 새로운 종자가 미래에 새로운 조건을 만나 업을 지으면 중생은 윤회를 계속함.
   - 지혜의 종자가 성숙하여 번뇌를 완전히 제거하면 모든 식이 지혜로 변화되어 해탈하게 됨.

---

1) 천재교육, 『윤리와 사상』, 56p
2) 위의 책, 56p